

유흥주점 또 집단감염... 재확산 우려

'제주시 유흥주점4' 관련 종사자 등 8명 확진 '제주시 외국인 교회' 새 집단감염까지 발생

개천절 연휴 기간 제주지역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사이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날짜별로는 1일 8명, 2일 5명, 3일 7명, 4일 오후 5시까지 5명 등이다.

확진자 수치는 한자릿수를 유지했으나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 내 전파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다시 허용했다.

지난 1~4일 동선이 공개된 유흥시설은 총 4곳이다. 지난 1일 제주시 연동 소재 '송죽매' (노출일시 9월 23·24·29일)·'파티24' (노출일시 9월 23·25·27·28일)·'폭스 비즈니스 룸' (노출일시 9월 23일)이 공개됐으며 4일 '탐' (노출일시 9월 27일~10월 1일)이 공개됐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지난 1일 동선이 공개된 유흥시설 3곳 중 1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종사자 및 종사자와의 n차감염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8명이 감염됐으며, 해당 집단감염은 '제주시 유흥주점4'로 분

류됐다.

4일 동선이 공개된 '탐'에선 종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지역에선 지난 7월 유흥시설 5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터라 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고, 마스크를 벗고 음주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가 높아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 또 방문객 대상 진단검사가 권고되고 있지만, 업종 특성 상 방문 이력을 숨기거나 진단검사를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존재해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동선이 공개된 유흥시설에서 제주안심코드만을 통해 방문 이력이 파악된 인원은 '파티24' 57명, '폭스' 27명, '송

죽매' 4명 등 88명이지만, 해당 시설 방문 이력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대에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일 가정 '제주시 외국인 교회'로 분류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가정 '제주시 외국인 교회'와 관련해서 지난달 29일 1명, 30일 3명, 4일 3명이 확진돼 총 7명이 감염됐다.

한편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909명이며 이날 들어선 25명이 감염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54명이 감염됐으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7.71명을 나타내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자태 뽐내는 백일홍 3일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 향유유적지에 백일홍이 피어나 알록달록 저마다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가을이 왜 이래?... 때아닌 무더위

어제 일부 열대야... 성산·고산 최저기온 역대 1위

가을에 들어선 제주에 때아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귀포시 성산의 최저기온은 25.4℃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최저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아울러 고산의 최저기온도 24.7℃로 역대 10월 가운데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고, 서귀포도 24.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또 전날 지점별 낮 최고기온을 보면 구좌 31.6℃, 제주(기상청) 31.1

℃, 함림 30.6℃ 등 곳곳에서 30℃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의 최고기온은 31.1℃는 10월 이후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는 지난 3일 따뜻한 날씨에 일사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낮 기온이 30℃ 가까이 올랐고, 해가 진 뒤에도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5일은 구름 많고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다. 송은범기자

교육자료 공개 구입 제주교육박물관, 29일까지

제주교육박물관이 교육자료를 공개 구입한다. 공개 구입 대상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교육 일반 관련 자료, 제주역사·문화 관련 자료다.

매도 신청 자격은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으로 매도 신청 접수는 이달 29일까지다.

접수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류 접수한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실물 자료로 접수받고,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때아닌 피서객 물린 협재해수욕장 때아닌 늦가을 무더위가 찾아온 4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는 많은 도민·관광객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민기자

탐나는전 부정유통 엄단?... 과태료 0건

10개월 간 15곳 적발 속 불법 환전 규모 9200만원 상당 과태료 부과·취소 없어... 道 "상공인 어려운 사정 감안"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탐나는전이 도입된 후 불법 환전(상품권 강) 등 부정 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된 가맹점은 15곳이다. 이들 가맹점의 탐나는전 불법 환

전 규모는 9200여만원으로 제주도는 이중 10%인 920여만원을 환수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전수조사와 함께 적발된 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탐나는전이 도입된 지 얼마 안돼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영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가맹점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불법 환전하는 등 속칭 강을 하다가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고민 끝에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만 했었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5~22일 온·오프라인서 일자리박람회 70개 기업·기관 참여...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22일까지 '2021 온·오프라인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50개 기업과 20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은 1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관광, 정보통신, 교육, 금융, 유통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하다.

박람회 참가와 구직을 원하는 도민들은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이용 ▷

기업정보 탐색 및 유관기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참여 ▷채용지원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면접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행사기간 중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구직자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주고용센터 5층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된다. 날짜별로 19일 중장년과 고령자, 20일 장애인, 21~22일 경력단절여성으로 분산해 구직신청 및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강다혜기자

"신화월드 카지노 일방적 구조조정 멈춰라"

관광서비스노조 LEK지부
제주관광서비스노조 LEK지부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신화월드 카지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LEK지부는 "신화월드 카지노는

지난 9월 23일 저녁 기습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붙였다. 공고 내용엔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미진할 경우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겁박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경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관 준공
KTA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산업의 중심! 선진물류의 시작!
제주화물협회와 공제조합 제주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주지부**

이사장 **고영철**

부이사장	정성택	부이사장	문종영
이 사	김판섭	이 사	강공철
이 사	김영선	이 사	강성구
이 사	김영도	이 사	김동현
이 사	유철수	이 사	고용석
감 사	서영운	감 사	강창근

외 회원사 일동

제주시 변영로 387(봉개동) TEL. 753-8211~2, FAX. 753-8312